삼성토탈, 제조원가 2000억원 절감!

2007년까지 3년 동안 생산성 향상 노력으로 … 에너지 절감도 추진

삼성Total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7년까지 제조원가를 2000억원 가량 절감할 계획이라고 2월15일 발표했다.

삼성토탈은 혁신프로그램인 <업그레이드 삼성토탈 330>을 추진해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감을 이루어냄으로써 2007년까지 3년간 매년 제조가공비의 30%인 700억원씩 모두 2000억원 가량을 절감할 계획이다.

또 최근 <시스템 혁신 태스크포스팀>을 구성하고 회사업무 전반에 걸친 표준화 작업과 선진회사 벤치마킹,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.

이밖에 2005년을 <직무능력 향상의 해>로 정해 직원들에 대한 캐나다 어학연수와 외국어강좌, 직무관련 자격교육, 설비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통해 인적 경쟁력도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.

삼성토탈 고홍식 사장은 "내수경기 침체 등 장기불황에 대비해 생산성 향상을 포함한 원가절감을 이룸으로써 비용을 30% 줄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경영시스템과 새로운 합작기업문화 글로컬(Global+Local+Culture)을 만들어 나갈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5/02/16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